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 경 숙*

The Effect which the Motivating Factors of Teenagers have on their own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Kyung 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실증적 자료분석을 하였고,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가족영향, 매스컴은 내적 및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는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외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Keyword : 내적동기, 외적동기,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감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enagers' motivating factors on their own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Positive analysis of data was made based up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lso, the casual relation between the motivating factors of teenagers and their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as follows : stress, family effect, and mass communications had an effect on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intrinsic motivation had an effect on the school-life satisfaction, and the extrinsic motivation was revealed to have an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Students' self-efficacy also influenced their school-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ed a few methods to improve teenagers' self-efficacy and their school-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otivating factors.

▶ Keyword :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School-life satisfaction)

• 제1저자: 김경숙
• 투고일 : 2011. 01. 10, 심사일 : 2011. 01. 26, 게재확정일 : 2011. 02. 01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강사(Welfare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I. 서론

청소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이다. 기존의 사회구조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주변경계인의 상태이다. 또한 그들은 아동으로서 배운 역할과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윤리성을 접목시켜야 하는 심리적·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적 측면에서는 사회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 개개인의 생활패턴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애정적 유대와 훈육기능의 약화 및 대화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창의성계발이나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과 생활패턴의 변화는 치열한 경쟁과 성적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인성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내신성적이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친구관계도 더욱 각박하고 소홀한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그 결과로 청소년들은 건전한 자아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나친 경쟁심리로 인해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다[1].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은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 중 중요한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청소년의 삶의 양식과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2].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인 청소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열등감을 갖게되며, 자기표현에도 자신이 없고 사회성도 뒤떨어져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 또한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자주 결석하게 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자퇴까지 이르게 되는 심리적 불안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관련해 최근에는 인간의 내적 동기요인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외적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는 것

이다[3]. 이에 비해 외적 동기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으로 이루어진 동기로, 인간의 사회화 현상에서 자연적 또는 내적동기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와 같은 많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청소년의 동기요인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학교생활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II. 관련연구

1.1 청소년의 동기요인

청소년의 동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5]. 스트레스와 또래관계를 들 수 있고[6]. 가족 영향과 경제성을 들고 있다[7,8]. 매스컴과 주변 환경 등을 들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또래관계, 가족 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환경 변수들이 청소년의 동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성격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10]. 또한 학생들이 학교환경 및 생활에 대해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걱정, 고민, 불안, 불만 등을 의미한다. 발달 과정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등의 자아정체감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과업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압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의 상이한 역

할 요구로 인해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지닌다고 보았다[11]. 청소년기는 가치관의 혼란,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도한 압력과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압력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연령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판단할 경향이 크고,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발달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 집단보다도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12]. 이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력,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여러 가지 변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또래관계의 확장이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래집단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치관을 갖게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이와 반대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절한 관계형성 능력이 결여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14].

셋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족의 영향은 한 개인의 성격 형성의 발달 속도는 개인의 신체적 성장속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을 말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가치전달과 의사표현을 통해 내적 긴장의 완화,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치며[15]. 부모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16].

넷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의 경제성은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부모의 생활모습에 대해 만족하였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가정경제가 불안정하면 가족구성원들의 정신적 갈등 및 문제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은 경제 불황을 경험하면서 가족환경이 더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은 경제 불황으로 가족환경이 나빠진다[17].

다섯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매스컴은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과 감당할 만한 대안적 가치관이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는 날로 포악해지는 범죄 현상과 더불어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많은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환경은 가히 위협적이다[18]. 현대사회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고, 감각을 둔화시키고, 가치기준의 저하, 현실을 왜곡, 범죄기술의 전파 등 비행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고, 텔레비전 매체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전 연령층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특성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의 많은 부분이 폭력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공유한다. 매스미디어의 여파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9].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각 하부체제를 연결시키는 상호작용과 문화전송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집이나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널리 산재해 있어서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 일수록 비행과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학교와 집주변의 유해환경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어서,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와 집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교나 집주변의 유해 환경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업소는 일정범위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1.2 청소년 동기의 유형 :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청소년의 동기는 크게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내적 동기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일정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활동을 말한다[20]. 내적동기의 네 가지 차원은 도전, 통제, 호기심, 그리고 환상이다. 이들 네 가지 차원은 내적동기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과제에 대한 지속력을 갖게 할 것이다 [21]. 최근에 내적동기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인간의 외적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고 하였다[22].

둘째, 외적 동기는 어떤 동기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외적동기에 의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외적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현상에서 자연적 또는 내적동기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와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23]. 최근 자결성의 역할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외적동기의 다른 유형을 제시하였다[24]. 외적동기 유형인 조정은 타인에 의해 물질적 보상 또는 강조된 제약 같은 외적 자원에 의해 조절된 행동을 말한다[25]. 외적동기의 투입은 처음 행동에서 요구된 것 만큼 오래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양심의 가책 또는 불안 같은 내부 압력을 통하여 강화되기도 한다[26]. 외적동기 유형인 동일시는 중요한 행동, 판단, 가치가 있을 때 작용하는 동기이다[27]. 따라서 동기는 인간행동의 변수를 야기하는 근원으로써 인간행동의 에너지이며 행동의 활성을 증감시켜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심리적 요인이다[28].

1.3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

첫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29].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30].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변수가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둘째, 학교생활만족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조건이나 학교환경 및 생활에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말한다. 따라서 수업과 학습, 학교환경, 낮은 학업성취도, 친구의 비행, 학급분위기, 학교생활의 요인을 연구했다[31]. 학교생활만족은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아동들이 교사, 또래집단과 인간관계를 맺고 교육활동을 하는데 충분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32].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학습을 위한 관계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변수가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내·외적 동기 형성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동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환경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동기요인은 청소년의 동기형성 즉,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내·외적 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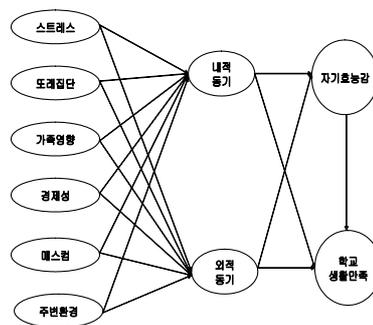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1. Research Model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구분	내 용
가설1.	청소년변수인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마스크, 주변 환경은 내적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변수인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마스크, 주변 환경은 외적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외적동기는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1.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은 G광역시와 J 광역자치단체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8월 11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0부 중 281부를 회수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층으로 나눈 다음,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Demographics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2	50.5
	여성	139	45.5
학년별	중학1년	87	31.0
	중학2년	76	27.0
	중학3년	55	19.6
	고등1년	22	7.8
	고등2년	38	13.5
학교 유형	중학교	214	76.2
	고등학교	67	23.8
월용돈	5만원이하	239	86.1
	6만원이상~8만원이하	31	11.0
	9만원이상~11만원이하	2	0.70
	12만원이상~14만원이하	2	0.70
	15만원 이상	7	2.50
학교	광주광역시	276	98.2

지역	전라남도	5	97.9
주거 지역	광주광역시	275	2.1
	전라남도	6	23.8
부모 직업	농업	2	0.70
	상업	15	5.30
	공업	6	2.10
	회사원	79	28.1
	공무원	58	20.6
	전문직	43	15.3
	자영업	53	18.9
	기타	25	8.9

1.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요인분석의 적합지수를 나타냈다.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의 변수를 검토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마스크, 주변환경, 내적동기, 외적동기,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 등 10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KMO(Kaiser-Meyer-Olkin)는 0.784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4].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모형 검증결과로 도출된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812.347, 자유도는 989 χ^2 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고, RMR(원소간평균 차이)값은 0.046으로 0.05이하이고, RMSEA(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값은 0.067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분석 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14.0을 이용하였으며, 항목간의 평균적

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스트레스(.835), 또래집단(.671), 가족영향(.860), 경제성(.653), 매스컴(.681), 주변 환경(.787), 내적동기(.797), 외적동기(.811), 자기효능감(.811), 학교생활만족(.785) 등 10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1.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4.0 과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34].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 환경은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인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의 변수인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에 미친 영향요인에 대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표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603.873, 자유도는 999, χ^2 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의 값(p=0.000)이 0.05보다 작고,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은 0.043으로 0.05보다 작고, RMSEA(근차평균제곱근 차이)값은 0.062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어느 정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3. Fitness index of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적합지수	2603.873 (.000)	999	.915	.062	.043
구분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NFI	IFI	CFI	AGFI	
적합지수	.918	.920	.917	.909	

1.4 가설 검증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된 다음 여기서 얻은 표본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를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 여부를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변수인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 환경이 내적 및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4>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변수인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 환경이 내적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6>까지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경로계수 .238, p 값은 .000), 가족영향(경로계수 -.174, p 값은 .042), 매스컴(경로계수 .369, p 값은 .008)은 내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집단(경로계수-.066, p 값은 .498), 경제성(경로계수-.018, p 값은 .843), 주변환경(경로계수-.005, p 값은 .945)은 내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7-12>에서 '청소년의 변수인 스트레스, 또래집단, 가족영향, 경제성, 매스컴, 주변 환경이 외적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경로계수 .143, p 값은 .013), 가족영향(경로계수 .512, p 값은 .000), 매스컴(경로계수 .294, p 값은 .010)은 외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집단(경로계수 -.079, p 값은 .340), 경제성(경로계수 .070, p 값은 .357), 주변환경(경로계수 -.095, p 값은 .147)은 외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13-17>에서 '내적·외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내적동기(경로계수 -.064, p 값은 .269)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내적동기(경로계수 -.136, p 값은 .010)는 학교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경로계수 .368, p 값은 .000)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외적동기(경로계수 .317, p 값은 .000)는 학교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경로계수 .261, p 값은 .000)은 학교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경로계수		C.R.(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표준화			
1.스트레스→내적동기	.161	.238	3.476	.000	채택
또래집단→내적동기	-.088	-.066	-.678	.498	기각
가족영향→내적동기	-.156	-.174	-2.036	.042	채택
경제성→내적동기	-.019	-.018	-.198	.843	기각
매스컴→내적동기	1.033	.369	2.636	.008	채택
주변환경→내적동기	-.004	-.005	-.069	.945	기각
2.스트레스→외적동기	0.86	.143	2.433	.013	채택
또래집단→외적동기	-.094	-.079	-.954	.340	기각
가족영향→외적동기	.411	.512	6.579	.000	채택
경제성→외적동기	.067	.070	0.921	.357	기각
매스컴→외적동기	.777	.294	2.581	.010	채택
주변환경→외적동기	-.033	-.035	-1.450	.147	기각
3.내적동기→자기효능감	-.046	-.064	-1.104	.269	기각
내적동기→학교생활만족	-.120	-.136	-2.564	.010	채택
외적동기→자기효능감	.298	.368	5.507	.000	채택
외적동기→학교생활만족	.311	.317	4.895	.000	채택
자기효능감→학교생활만족	.316	.261	4.050	.000	채택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동기요인 중 스트레스, 가족영향, 매스컴 등은 청소년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집단, 경제성,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형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 및 매스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내적 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기각 내지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것이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소년의 외적 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외적 동기에 의해 제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통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성적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적 제일주의가 아닌 창의와 기쁨이 넘치는 전인교육 체제로의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긴장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화문화를 이루어나기야 하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단위 여가공간의 확충이 절실하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높고, 긴장관계에 있어서 사회대처능력이 뛰어나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통제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하며, 부모와 자녀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안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고, 청소년을 위한 방송 시간을 늘려야한다. 청소년방송 관련 법률을 강화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방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동기인식이 자기효능과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시사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반 문화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결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실증분석 결과 이론적 논의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동기요인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Huh Jeong-chol, "A Positive Study on Effect of Whole Person Education Program for Establishment of Policy on Adolescents". A doctoral thesis of Chosun University, 2004.
- [2] Gu Tae-hun and Kim Mun-seop,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vol. 9 of A Study on Students' Life』, pp. 27-28, 2004.
- [3] De Charms, R.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68.
- [4] Deci, E. L.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1975.
- [5] Cohen-kumarcck & Mermelstei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pp. 99-125. 1983.
- [6] Gwak Young-gil, "A Study on perception on and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07.
- [7] Jeong Jeong-ho, "A study on damages from peer violence",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8] Lee Mun-ja, "A study on ecosystem variables of mobbing behaviors of primary school students", a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9] Park Da-ae,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lim University, 2001.
- [10] Jeong Ok-bun, "Adolescents' Development", Hakjisa publishing, 1998.
- [11] Choi Hae-lim "Stress and College Students", Seongsim Life, 1985.
- [12] Gang Young-ja, "A comparative study on stress in daily life and alternatives between general students and delinquent students", a doctoral thesis of Sangmyeong Girls University, 1996.
- [13] Magnini, V. P.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Moderators of the Service Recovery Paradox", Doctoral Dissertation, Old Dominion University, pp. 57. 2004.
- [14] Mun Hyeong-chun, "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and Mental Health", 『A study on Adolescents Counselling in Seoul』, volume 1, No. 1, pp. 41~50, 1999.
- [15] Jo Yu-jin, "Witness of Mobbing and Intervention Factors on Wrongdoing Route", a doctoral thesis of Sukmyeong Girls University, 2006.
- [16] Yang Don-gyu, "Adolescents' sensorial pursuance and internet addiction, and wrongdoing relating to Internet", 『A study on Youth Study』, 7(2), pp. 117-136, 2000.
- [17] Tax, S. S., W. S. Brown & M. Chandrashekam. "Customer Evaluation of Service Complaint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62(April), pp. 60-76. 1998.
- [18] Kim Sin-il, "Meaning and Character of Youth Culture", 『Korea Youth Research Institute』, 1994.
- [19] Choi Chung-wook et. al. "Theory of Youth Education", Yangseowon, 1998.
- [20] Mathieu, J. E., & Zajac, D. M.,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8, pp. 171-194. 1990.
- [21] Balfour D. L., & Wechsler B., "Organizational Commit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in Public Organization",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19, pp. 257-259. 1996.
- [22] Morris, J. H. & Steers, R. M., "Structural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17. 1980.
- [23] Morrow, P. C., & Wirth, R. E., "Work commitment among salaried professiona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34. 1989.

- [24] Podsakoff, P. M., Williams, L. J. & Todor, W. D., "Effect of Organizational Formalization on Alienation Among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4). 1986.
- [25] James, L. R., & Jones, A. P., "Organizational Climate :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1, pp. 1096-1112. 1974.
- [26] Ferris, K. M. & Aranya, N., "A Comparison of Two Commitment Scales", *Personnel Psychology*, 3, pp. 87-98. 1983.
- [27] McCormick, E. J., & Tiffin, J., "Industrial Psychology", 6th ed, Prentice-Hall, pp. 298-299. 1974.
- [28] Kim Mi-gyeong,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Faith Needs of Infants", 『Collected Papers on Childhood Education』.vol. 4, 2000.
- [29] Locke, E. A.,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 ed. Marvin D. Dunnette, (Chicago: Rand McNally): pp. 1300. 1976.
- [30] Beatty, R. W. & Schnier, C. E., "Personal Administration : An Experimental Skill- Building Approach", 2nd ed.,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pp. 392-393. 1981.
- [31] Han Jun-sang, "School Stress, Publishing Office of Yeonse University", 1996.
- [32] Han Ju-hee, "A study on effect of boss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on job satisfaction and continuing working ", 『Collected Papers on Productivity』. vol. 4, No. 3, 2000.
- [33] Gye Seon-ja et.al. ,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s school life and Their Life Satisfaction", 『Daehan Home Academic Journal』 39(2), pp. 57-73, 2001.
- [34] Lee Hak-sik-Im Ji-hoon, "A model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and AMOS6.0", Beopmuna, pp. 257-368, 2007.



김 경 속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
지학 박사

현재 : 조선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복지행정, 복지정보시
스템, 정보관리

Email: kkysuk1@hanmail.net

저 자 소 개